

금주 법구
이 공부 처음과 끝 모두가 중요하다
구태여 가리라면 초발심이 중요하네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제도하니
이래서 초발심과 기꺼이 맞이하네.
- 대반열반경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청거북 방생말자

"구속이나 억압과 질곡에 빠져있는 생명을 풀어준다." 방생(放生)이란 말을 풀이하면 이렇다. <범망경>에서는 "불자들이여, 지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불설아나사사경>에서는 "집승들과 곤충 등 하천한 것이 살려주기를 바라거든 항상 가없이 여겨 먹을 것을 주고 깨어나게 할 것이요"라면서 방생의 대상이 미물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방생이 말씨가 되고 있다. 불교를 욕되게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위의 경전에서 알 수 있듯 방생은 불교기를 놓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미물의 생명까지도 아끼듯 자비를 널리 펼치라는 뜻인데,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물고기 놓아주기'가 성행하자 행정당국이 자체를 촉구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최근 붉은귀거북(청거북)의 수입과 방생을 자체해달라고 각 종단에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한강변 방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청거북, 배스, 중국붕어, 떡붕어, 미꾸라지, 메기, 가물치 등을 놓아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청거북이라고 밝혔다.

장 - 군 - 죽 - 비

- ◇참여불교 재가연대, 수행과 회향을 지향하는 불교 공동체를 향해 뒀 울렸다. 초목마을로 가는 입구, 재가연대. (2면)
- ◇지금 남도의 산사에서는 동백이 붉게 타는 가슴을 열고 있다. 아가야 나오너라, 봄 마중 가자. (11면)
- ◇신혼, 요승인가 개거가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공민왕 비사-파몽기'를 보라. (14면)
- ◇불교 사이트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 노출, 컴퓨터와 잘못 사기면 인간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23면)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끝내 '종교라는 이름의 이란'을 저지르고 있었다. 마스우라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바미안 석불이 파괴됐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바미안 석불의 파괴장면과 파괴되기 전 모습(오른쪽). 사진=CNN 촬영



정대스님은 "탈레반정권의 석불 파괴는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탈레반정권이 노리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도록 외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불파괴 반문명 범죄"

조계종·진각종 성명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3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의 바미안석불 파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탈레반 정권에 외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8면)

정대스님은 "탈레반정권의 석불 파괴는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탈레반정권이 노리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도록 외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각종 총무원장 성초 대장사도 14일 성명을 통해 탈레반정권에 대해 "희생행위의 즉각 중단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 '문화도량' 만든다

시민문화센터 개설... "신행·포교·관광 한곳에서"

옛 우정총국-조계사-수송공원 잇는 공원화 추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면서도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인 초라한 모습이었던 조계사가 수행 포교의 중심지이자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갖춘 불교종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한다.

조계사주지 지휘는 우선 입주된 건물과 관련해 현 사찰 출입구 오른쪽의 불구멍 매입을 이달 하순경까지 마무리짓고 연내에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대웅전 뒷면엔 100여명 규모의 슬레이트 건물을 매입, 늦어도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이 건물을 모두 철거대응전야대응을 대폭 확장키로 했다.

이 두 불사와 함께 조계사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총무원 신행사 기공 및 현재 서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 우정총국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사찰을 공원같은 휴식도량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신행사 건립이 착공되면 총무원과의 경계를 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이 나무 길을 사찰 뒤편 해발면까지 연결시켜 수송공원과 이어지게 하는 한편, 해발면 옆 문화교육관을 회랑 형태로 개조해 옛 우정총국-조계사-수송공원까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웅전 옆에 만불전을

새로 조성해 신도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 포교원 건물을 시민문화센터로 발전시키나가기로 했다. 또 인사동에서 조계사로 이어지는 '불교문화벨트' 구축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조계사는 수행도량이자 교육 포교 문화의 중심지로, 또 관광명소이자 시민의 휴식처로서 완벽한 불교타운을 구축하게 된다.

지홍스님은 "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전파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 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1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황변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우양받고 있는 포항형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용문석굴·백마사·대상국사

-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 ◇참가비: 73만원(공항세·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수비는 별도)
-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회)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아주세계여행사
- 후원: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태고종 수습대책위 결성

중진·소장급 36명... "불화 계속땀 승려대회"

태고종 중진 소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분규 풍식을 위한 '태고종연수습대책위원회(이하 중진수습위)'가 꾸러졌다.

수습(전 전북총무원장), 원봉(전 충북총무원장) 지성(전 총무부장) 스님 등 태고종 중진 및 소장 스님 36명은 16일 서울 하림각에서 중진수습위를 발족하고 현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80회 총회에서 선출된 법장스님 양

측은 20일 이내로 납득할 만한 중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 등 3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진수습위는 또한 불화가 계속될 경우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해 현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두 스님이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은 16일 회동, 함께 사퇴하기로 합의했다.

이경숙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 '남도 산사' 2박 5일

"봉축 군위문품 보내자"

군불교진흥회, 5만개 준비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스님)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군장병 불자 위문품 보내기 운동' 간담회를 갖고 올해 5만개의 위문품을 보내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춘광 현대종 교무부장 스님,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남기훈 태림종합건설 대표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2만여개의 위문품을 전달한 군불교진흥회는 올해 5만개의 위문품을 전국 불자장병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두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자님들의 구독료 불국토의 밑거름

-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 ▶문의 전화 (02)737-0090

一心佛院

각종 불사/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佛壇, 佛龕, 佛龕, 佛龕
02-725-2030/725-2040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결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 서초동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 영가법문: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 주모사: 총무원장 정대
- 영산재: 인목스님

증명: 천운·원명·종국
봉행위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위원: 지홍 정각 법장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법조 도영 다정 현보 보선 중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해자 양산 종지 성국 계성 상운

집행위원장: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념 도완 도공 원담 장곡 진각 지운 선광 범등 법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승 지광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록 동욱 지광 현응 지옥 향적 학단 법안 해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운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법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

